

텍사스 기쁨의 교회 Joyful Community Church of Texas

2026 성경일독 & Family Worship (6 월 June)

	리딩지저스 성경일독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st	이사야 Isaiah 1-30	죄와 보응
2nd	이사야 Isaiah 31-66	구원과 결혼
3rd	예레미야 Jeremiah 1-30	말씀의 효력
4th	예레미야 Jeremiah 31-예레미야애가 Lamentations 5	성례, 기도

우리 집 가정 예배는 ()요일 ()시에 ()에서 드립니다.

Our family worship is held on () day at () o'clock in ().

- 온 가족이 함께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세요.
Decide on the time and place together as a family.
- 가정 예배지를 개인 묵상용(QT)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also use the family worship guide for personal devotions (QT).

영어권: 자녀들과 함께 읽는 New Morning Mercies for Teens (Paul Tripp)

- 매일 잠 자기 전에 하루 한 장씩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Every night before bed, read one chapter with your children and share a time of prayer together.

교회 홈페이지(www.joyfulpca.org)를 통해 가정 예배지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st Week 이사야 Isaiah 1-30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이사야는 남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해 가던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때는 웃시아 왕이 사망한 기원전 740 년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무너지고, 남유다도 아하스 왕 때 앗수르와 동맹을 맺고 속국이 되면서 점점 우상숭배에 물들어 갑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잠시 개혁이 일어나지만, 그의 아들 므낫세가 더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 제사까지 드립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39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40-66 장에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사야 1-30 장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저버린 백성에게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 심판은 단절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Isaiah is called as a prophet during a period when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was falling into spiritual decline. God called him in 740 BC, the year King Uzziah died — before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had yet fallen. After that, the northern

kingdom of Israel was destroyed by Assyria, and Judah also entered into an alliance with Assyria under King Ahaz, becoming a vassal state and gradually being corrupted by idol worship. A brief reform takes place under King Hezekiah, but his son Manasseh commits even greater evil, going so far as to offer child sacrifices — something God had strictly forbidden. It is in this dark era that Isaiah boldly proclaims the Word of God.

The book of Isaiah is broadly divided into two parts. Chapters 1–39 point out the sins of Israel and Judah, warn of God's judgment, and call the people to repentance. Chapters 40–66 proclaim God's promise of salvation and restoration through the Messiah.

This week we read Isaiah 1–30 together. We will examine how God declares judgment upon a people who have broken the covenant — yet that judgment is not a severing of relationship, but a call to restoration.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면서,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유다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거짓과 교만에 빠져 있었고, 앓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굽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안정을 위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지는 않는지 돌아봅시다.

2.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며 선지자 사명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단 숯불로 그를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도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3. 하나님은 거절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평강의 왕, 반석 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내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1. The people of Judah confessed with their mouths that they believed in God, yet in reality they were steeped in deceit and pride, and in the face of the Assyrian threat, they placed their trust in the power of Egypt rather than in God. Let us examine ourselves — are we, too, relying on something other than God for the security and stability of our lives

2. Isaiah declares that his lips are unclean and that he is unworthy of the prophetic calling. Yet God purifies him with a burning coal from the altar and prepares him to fulfill his mission. Let us remember that our own calling and purpose are accomplished not by our own qualifications, but by the grace of God — and reflect on how that truth applies concretely to our lives.
3. Even when rejected, God does not give up on Israel. And He promises restoration through the Messiah. Immanuel, the Prince of Peace, Christ the Rock of salvation — how does the grace and faithfulness of the God who made these promises speak to you personally?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2nd Week 이사야 Isaiah 31-66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점점 구원과 위로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특히 40 장부터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40:1)라는 선언과 함께,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본격적으로 선포됩니다.

또한 고난받는 여호와와 종, 즉 죄인을 대신해 희생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종말의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은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과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이사야 31-66 장을 함께 읽으며, 심판을 넘어 구원과 회복으로 그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구원과 회복을 깊이 소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In the latter half of the book of Isaiah, the message of God's judgment gradually shifts toward a message of salvation and comfort. Beginning especially in chapter 40, with

the declaration "Comfort, comfort my people" (40:1), the promise of salvation and restoration through the Messiah is proclaimed in full.

The text also vividly portrays the suffering Servant of the Lord — the Messiah who is sacrificed in the place of sinners — through which we can see how Jesus fulfilled Isaiah's prophecy. Through the suffering Servant, God forgives the sins of His people, renews them, and promises the eschatological hope of a new heaven, a new earth, and a new Jerusalem. That restoration is not for one nation alone — it is God's plan of salvation for all nations and the entire cosmos.

This week we read Isaiah 31–66 together, and we will explore the remarkable grace of God who leads His people through judgment and into salvation and restoration. May this be a time to fully grasp that the true comfort of God's people comes from God alone — and to deeply hope in the ultimate salvation and restoration given to us through Jesus, the promised Messiah who has come.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셨습니다(이사야 53 장).
예수님이 겪은 고난을 당연시하거나 가벼이 여긴 적은 없나요? 내 마음에서 무뎠던 부분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2. "내 백성을 위로하라"(이사야 40:1)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 중에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 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졌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내려놓게 하나요?

3. 하나님의 구원은 한 민족을 넘어 모든 민족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우주적 회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때로는 너무 개인 차원에서만 바라보지는 않나요? 가정과 일터, 사회의 여러 영역 중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곳이 있다면 함께 나눠 봅시다.

1. Jesus came as the suffering Servant and bore the atoning work of the cross (Isaiah 53). Have you ever taken the suffering Jesus endured for granted, or treated it as something trivial? Let us examine ourselves and ask whether there are areas in our hearts that have grown numb.

2. The words of God — "Comfort my people" (Isaiah 40:1) — beautifully reveal the heart of a God who, even in the midst of judgment, still remembers and cares for His people. Even when we feel distant from God's presence because of sin, His care for us is never cut off. What fears or anxieties does this truth allow you to set down?

3. God's salvation is a cosmic restoration that renews not just one nation, but all peoples and all of creation. Do we sometimes view God's sovereignty too narrowly — only through the lens of our personal lives? If there are places — in your home, your workplace, or the broader spheres of society — where you long to see God's restoration come, let us share them together.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3rd Week 예레미야 Jeremiah 1-30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다섯 왕 시대에 부름을 받아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아 왕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시도했지만, 그의 죽음 이후 개혁은 빠르게 무너집니다. 이후 남유다는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여러 번 반란을 시도하지만, 결국 기원전 586 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비극을 직접 지켜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릴 만큼 하나님 백성의 죄악과 멸망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했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유다가 겪을 비극을 담은 그의 메시지는 왕과 백성들에게 비웃음을 사거나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25 장은 유다의 죄와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고, 26-52 장은 심판 이후에 찾아올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레미야 1-30 장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선포되는 경고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Jeremiah is a prophet called and commissioned during the reign of the last five kings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King Josiah came to the throne at a young age, discovered the Book of the Law, and attempted a religious reformation — but after his death, the reform quickly unraveled. Judah then made several attempts at rebellion against the threat of Babylon, but ultimately, in 586 BC, the city of Jerusalem fell, the Temple was destroyed, and the kingdom came to a complete end. Jeremiah witnessed all of this tragedy firsthand, and yet was called to proclaim the Word of God throughout it all.

Jeremiah is rightly called the "weeping prophet" — he grieved deeply over the sins and impending destruction of God's people, and it was out of that anguish that he delivered God's message. Yet his words, which carried the weight of the tragedy Judah was about to face, were routinely mocked or ignored by the king and the people alike.

The book of Jeremiah is broadly divided into two parts. Chapters 1–25 contain warnings about Judah's sin and the imminent judgment to come, while chapters 26–52 carry a message of restoration and hope that would follow after the judgment.

This week we read Jeremiah 1–30 together. May this be a time to take in the warnings proclaimed to a people who had turned away from God — and to listen carefully to His anguished call, still beckoning them to return.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인 자신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예레미야 2:13). 하나님보다 내 방식과 통제를 우선시했던 영역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랬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이 같은 외침과 초청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3. 예레미야는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나는 어떤가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죄와 고통에 무감각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며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1. God rebukes Israel for forsaking Him — the spring of living water — and instead digging their own broken cisterns (Jeremiah 2:13). Are there areas in your life where you have prioritized your own ways and sense of control over God? If so, what were they, and why do you think you did that?
2. God continually calls Israel to "return" through Jeremiah. The basis upon which a rebellious Israel can return is God's love and His covenant. For you, who now live within the new covenant through Jesus, what does this urgent cry and invitation mean to you personally?
3. Jeremiah embraces the sins of the people, grieves over them, and intercedes with tears. What about you? Have you perhaps grown numb to the sins and sufferings of those around you? Is there someone you know who needs to return to God — someone you should be lifting up in prayer right now?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

4th Week 예레미야 Jeremiah 31-예레미야애가 Lamentations 5

찬송: 가족 중에 한 명이 선곡을 합니다.

Praise: One family member selects a song of praise.

기도하기: 가족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합니다.

Prayer: One family member leads the prayer.

가족 중에 한 명이 오늘의 메시지를 낭독합니다.

Message: One family member reads today's message aloud.

[오늘의 메시지] Today's Message

예레미야서 후반부는 유다가 멸망하는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인내,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분 백성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끊어지지 않을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후반부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주제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37-44 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45 장에는 바룩에게 전한 짧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46-51 장에서는 여러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마지막 52 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간 여호야킨이 선대받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결말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모두 참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예레미야애가는 무너진 성과 성전을 바라보며 드리는 애통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3:22-23). 선지자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레미야 31-52 장과 예레미야애가를 함께 읽습니다. 심판을 넘어 찾아오는 회복과 새 언약을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약속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The latter half of Jeremiah proclaims God's justice and patience, and the promise of restoration through a new covenant — even amid the tragedy of Judah's destruction. God promises to personally inscribe His law upon the hearts of His people and to establish a new covenant that will never be broken.

The latter portion of Jeremiah is organized thematically rather than chronologically. Chapters 37–44 record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fall of Jerusalem, while chapter 45 contains a brief message delivered to Baruch. Chapters 46–51 prophesy God's judgment against various foreign nations. The final chapter, 52, closes with the fall of Jerusalem and the scene of Jehoiachin, taken captive to Babylon, being shown favor — an ending that confirms that every prophecy Jeremiah spoke was true.

The book of Lamentations is a prayer of mourning offered while gazing upon the ruins of the city and the Temple. Yet at its very heart stands a confession of faith: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3:22–23). The prophet's tears are not mere sorrow — they flow toward the hope of restoration through the Messiah.

This week we read Jeremiah 31–52 and Lamentations together. As we meditate on the restoration and new covenant that break through beyond judgment, may we also remember that we who are in Christ are already living in the blessing of that promised covenant.

[은혜 나누기] Faith Sharing

이번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며,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As you read through the Bible this week, share a verse or passage that stood out to you.

적용 Application

1.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거짓 평안을 말하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 역시 현실을 직면하기보다 듣기 좋은 말이나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선택해서 따르려 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2.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예레미야 31:33)라는 새 언약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언약 안에서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3.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예레미야애가 3:22)라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소망의 근거임을 보여 줍니다. 이 진리를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 God warned of imminent judgment through Jeremiah, yet the kings and people of Judah turned their ears toward those who spoke of false peace. Let us examine ourselves — have we, too, avoided facing reality and instead selectively followed only the messages that were easy to hear or that told us what we wanted to hear?
2. "I will put my law within them, and I will write it on their hearts. And I will be their God, and they shall be my people" (Jeremiah 31:33) — this new covenant has been fulfilled in Jesus. Within this covenant, how do you see your relationship with God today?
3. "The steadfast love of the Lord never ceases; his mercies never come to an end — it is because of these that we are not consumed" (Lamentations 3:22). This truth shows us that God's character is the foundation of our hope in any and every circumstance. How can you apply this truth to where you find yourself right now?

기도 Prayer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합니다.

Share prayer requests with one another and pray together.

오늘의 감사 기도 Today's Prayer of Thanksgiving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Close family worship with the Lord's Prayer.